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Strategy on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focus on the case of Cheonan-**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Jong Gwan Park(63312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 관련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천안지역주민 조사를 통하여 전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이 높은 유의관계를 보였으며, 이중 소속감이 사회참여의 욕구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 전략의 적용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적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

■ 중심어 : | 지역공동체 | 지역갈등 | 주민참여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is to draw community formation strategy for effective resolve the conflicts. Along with thesis of the regional community theory, this study sought strategy plan through cheonan regional people investigate. Feeling of satisfaction, sense of common bonds, sense of belonging could showed relation of high existence, and know that duplex sense of belonging acts greatly in desire of social activities in interrelationship study finding, regional community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

Essential factor of regional community formation is as following. First, it is application to the strategy of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that can correspond to special quality of various area and request of inhabitants. Second, the regional community's formation needs the local governments' active support, the cooperation, comprehension and voluntary effort of the regional people. Ideal regional community that we think gets joined conclude the relation as well as physical plenty and equality realization of social structure that is matured because awakening of conduced wholesome accident.

■ keyword : | Regional Community | Regional Conflict | Participation of Resident |

## I. 서 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간의 연대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 해지고 교통의 발달로 인한 타지역간의 교류가 쉬워지면서 지역사회 연대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도 개인주의의 확산과 지역사회 주민간의 공통분모의 상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어려워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천안시는 수도권과의 근접해 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과 세종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천안시는 여러 지역갈등을 겪고 있다. 즉, 천안시의 특정지역의 인구과밀화 문제와 그로인한 도시문제 발생,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심화, 물가의 상승, 새로 유입된 주민들의 지역정체성 약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해결 중요변수중의 하나인 공동체 형성전략을 연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체 형성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조사와 설문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한다.

## II. 이론적 검토

### 1.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필요성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과 운명을 함께 하는 조직체”이다. 즉, 공동체란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체로서 감정이나 충동, 욕망 등이 자연스럽게 또 실제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영어로 Community를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지역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지역주민, 지역적 공간, 사회조직, 지역문화, 공동체의식과 협동생활 등의 기본적 형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1]. 이처럼 지역 공동체는 지역주민, 지역적 공간 등의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커뮤니티를 통해서만이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란 공동체, 공동소유, 공동생활체와 같은 어원으로 일상용어, 학술용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2]. 즉,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근린 집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매키버(R. M. MacIver)는 커뮤니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카테고리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체계를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다. 둘째는 공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또 하나의 요소로 들고 있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지역성과 공동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가 붕괴됨에 따라 매키버는 공동성 대신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사용하였다. 따라서 커뮤니티에는 지역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지역성과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역성이란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표현, 공통된 전통, 공통된 습관, 공동 결속감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체의식이란 우리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을 의미한다.

오늘날 지역공동체(communitiy)라는 용어는 일상용어로서도 그리고 학술용어로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농촌사회학자 힐러리(George A. Hillery)는 공동체 개념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인데, 이것은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상호조건이 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와 조직, 그리고 사회체계 및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며 잠정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셋째 공통의 유대(common ties)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적, 문

화적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구성원 간의 일체감과 협동정신이다. 힐러리는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지리적 공간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4].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논자들은 커뮤니티의 구성 요건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성 및 공통의 연대(common tie)를 들고 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매키버의 개념 정의라 할 수 있다[5].

탈현대적 증후가 심화되면서 선진국들은 분해되어 가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공동체 재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능력의 부족으로 감당 할 수 없는 공적업무를 지역공동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공동체의 재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선행연구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서 구축된다[6][7]. 지역공동체는 사회구성원들이 지역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신뢰관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8].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인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 형평성, 공정성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유지되며[9][10]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인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시민인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필요(needs)에 기초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방정부 사이에 상호존중과 배려에 기초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11-13].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은숙(2003)은 지역공동체 형성모델로서 지역 단위의 주민참여,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역사회연대 등의 요인들이 공동생산 지향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계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체인 지역사회의 일반주민과 지방정부, 기업·민간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한 후, 공동생산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는 논의이다. 이 연구는 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선미도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14]. 연구결과, 지역거주집단이 현대적 조건 하에서 '지역공동체'로 명명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성, 권리로서의 참여, 네트워킹 등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배용환은 지방정부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적 조건과 여기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는 지방거버넌스 능력과 이것에서 도출되는 지방 거버넌스 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15]. 지역환경 조건에서는 자연적 조건, 경제사회적 조건, 정치적 조건, 문화제도적 조건 등을 포함하였고 지방거버넌스 능력에는 지방통치요구(지방정책문제 특성)와 지방통치능력(행위자의 범주와 이해, 행위자의 상호작용기제)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거버넌스 모형에는 현실모형, 지역정체성, 행위자의 수와 유형, 행위자의 상호작용관계(성격, 강도, 영향력, 사회자본 역할), 지방정책결과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동행정이 실제 지역공동체 형성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안성호 등은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 I에서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와 주민참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행정과 지역공동체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의식과 역할의식, 그리고 의존의식으로 구분하는 지역공동체 형성과는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민 의식 대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동을 지역공동체 축진의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 연구는 거주지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비롯해서 인간관계문제점, 주민운동전개 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를 했다[16].

### 3.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와 주민참여

공동체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집단으로서, 공동체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다 건설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17]. 공동체의식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지역공동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내에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8].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는 구성원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9]. 김경준(1988)도 맥밀란과 채비스의 정의를 적용하여 공동체의 식을 규정하고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구성원의식,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및 욕구의 강화, 의사전달을 위한 상호작용 및 안전과 의존에 대한 느낌 등을 공동체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충만함, 욕구의 충족과 통합, 지역사회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구성원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호영향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나타낼 수 있다[20]. 공동체의식을 조작화하거나 행동수준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Glynn(1981)의 연구 이후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구조의 객관적인 평가, 공동체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 안전의 6개

차원으로 측정하였다[21].

Nasr & Julian(1995)은 이를 근린공동체에 한정된 내용만으로 축소하여 공동체 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 안전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다. 김경준(1998)은 맥밀란(MaMillain)과 채비스(Chavis) 그리고 나사르(Nasar)와 줄리안(Julian)의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를 토대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종합하여 공동체의식이 구성요소를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친밀감으로 구성하였다.

표 1. 학자들의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학자	구성요소
성희자, 전보경	충만함, 연대의식, 일체감, 정서적 친밀감
김경준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Nisbet Nasar & Julian	구성원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와 충족의 통합, 정서적 연계
McMillian & Chavis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시민참여는 시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시민들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불장군의 일방주의는 서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 이익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이타적이고 양보적인 태도가 확산되면, 사회구성원들 간의 단결과 협력이 촉진되고,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선의 발견이 용이해 지며,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된다. 공동체의식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연대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동노력에 불참하려는 무임승차 하려는 욕구가 없어진다. 그리고 무임승차 욕구가 감소하다보니 사회구성원들간의 협력적 노력이 촉진되며, 집단행동의 딜레마

가 사라지고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 진다[22].

이에 반해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원자화, 파편화되어 개별적으로 행동하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려는 성향이 약화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유발하고 무임승차의 욕구를 유발하여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다[23].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을 제외하고는 미래에 자신에게 영향을 줄 정책에 대한 참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는 향유하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선거참여를 제외하고는 공공영역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가족개인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의 제창자인 퍼트남(Putnam, 1995)교수는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사회생활의 특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형태로 사회신뢰, 호혜주의(reciprocity)의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24]. 이러한 요소로 구성된 사회자본은 사회적 의무감 또는 사회의식이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한다[25]. 따라서 사회자본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발전하여 공동체 형성이 촉진된다. 그리하여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든다.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수준 높은 지방민주주의(high-quality local democracy)’가 또한 가능하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며,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이다[26].

#### 4. 연구모형 및 가설

앞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간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유입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수준의 차이 확인과 주민참여의 의향 및 주민참여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 수준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유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가설 1. 공동체의식 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유입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종속변수인 주민참여 의향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가설 2. 주민참여의 의향은 성별, 연령, 학력, 유입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종속변수인 주민참여 정도가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가설 3. 주민참여의 정도는 성별, 연령, 학력, 유입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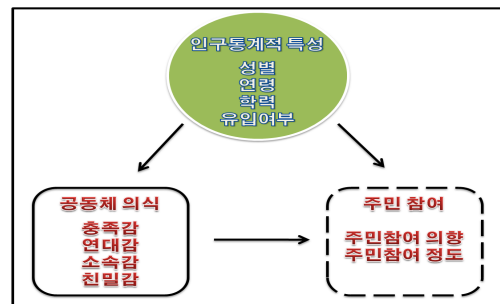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I.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조사는 2011년 10월 16일 ~ 2011년 10월 23일의 총 8일간 개별 면접방식을 통해 실시하였고, 회

수원 설문지 250부 중에 유효한 233부 만을 사용하였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12	48.1
	여	121	51.9
연령	20 ~ 25	98	42.1
	26 ~ 30	29	12.4
	31 ~ 35	18	7.7
	36 ~ 40	19	8.2
	41 ~ 45	13	5.6
	46 ~ 50	26	11.2
	51 ~ 55	20	8.6
56세 이상	10	4.2	
학력	고졸이하	37	15.9
	대학재학(2년졸)	107	45.9
	대학졸업	67	28.8
	대학원이상	16	6.9
	무응답	6	2.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5	40.8
	100 - 200	39	16.7
	200 - 300	51	21.9
	300 - 400	28	12.0
	500만원 이상	16	6.9
	무응답	4	1.7
고향	고향	95	40.8
	타향	137	51.9

\*유효설문인원 총233명

성별로는 남성 49.3%, 여성 51.9%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20대 청년층이 총 54.5%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는 다양한 연령층이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45.9%, 대학졸업 28.8%, 고졸 15.9%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서는 20대 청년층이 많다보니 100만원 미만이 40.8%, 2-300 21.9% 순이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 37.8%, 전문/자유직 11.6%, 자영업 10.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지만 본래 고향이 천안인지 타향인지 묻는 설문에서는 고향 40.8%, 타향에서 온 시민은 51.9%로 집계되었다.

2. 분석결과<sup>1)</sup>

1)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0.70이상에서 0.90까지 높게 나타나 문항사이에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상관계수와 유의 확률을 기준으로 한 상관분석은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은 결과변수인 주민참여의 3개 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친밀감은 참여의향을 제외하고는 결과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 빈도분석

표 3. 충족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1-1	233	0	2.8755	1.04095
q1-2	233	0	2.9227	.95730
q1-3	232	1	2.9440	1.06554
q1-4	231	2	2.7359	1.02764
q1-5	230	3	2.4870	1.13203

첫째, 충족감 설문조사는 다른 항목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의 응답이 나왔다. q1-3의 “천안사회는 시민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과 q1-2의 “천안사회는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의 문항이 5개의 항목 중 높은 수치의 응답이 나타났고, q1-5의 “천안사회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둘째, 연대감이다. 천안시민들에게 물어본 천안지역 사회 내 연대감에 대한 의식은 모든 항목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하였다. 그중 가장 높은 것은 q2-1의 “천안시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된다.”는 항목이었다.

표 4. 연대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2-1	233	0	3.5236	1.12595
q2-2	233	0	3.3863	1.18401
q2-3	231	2	3.4372	1.21734

셋째, 소속감이다. 소속감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 항목 간 편차가 컸다.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이 나온 문항은 q3-4의 “시민이 노력하면 천안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이고, 가장 낮은 수치의 문항은 q-3-3의 “천안사회는 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목으로 천안시민들은 비교적 천안사회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속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3-1	233	0	3.0901	1.18378
q3-2	233	0	2.9142	1.12626
q3-3	233	0	2.9056	1.17796
q3-4	232	1	3.8276	1.07128

넷째, 천안시민은 친밀감에 대한 설문 응답에 대해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을 나타냈다. q4-1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 평균보다 높은 수치의 응답을 하였고, q4-2의 “가족 이상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의 응답을 하여 천안시민들은 천안공동체 사회에서의 만족도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친밀감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4-1	232	1	3.6810	1.09781
q4-2	232	1	3.6853	1.18802

다섯째, 주민참여 정도이다. 천안시민들의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모든 문항에서 낮은 참여도를 나타냈다. 그 중 비교적 높게 나타난 문항은 q6-1의 “홈페이지 방문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q6-3의 “기타 주민참여 정도”와 q6-2의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6-1	232	1	2.0474	1.09005
q6-2	232	1	1.8664	1.09477
q6-3	232	1	1.9353	1.11276

여섯째, 주민참여 의향이다. 주민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전체적으로 평균이하의 응답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참여의향을 나타낸 항목은 q7-5의 “지역문제의 타인에게 정보 제공”, q7-6의 “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 q7-3의 “지역문제에 대한 건의 및 진정 의향” 순으로 나타났고, q7-4의 “반대서명운동, 항의집회 및 시의참여 의향”, q7-2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단체 가입 의향”, q7-1의 “공청회 및 세미나 참여 의향” 순으로 낮은 수치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 8. 주민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7-1	232	1	2.2414	1.10191
q7-2	231	2	2.3074	1.15942
q7-3	232	1	2.5690	1.17126
q7-4	232	1	2.5302	1.13158
q7-5	232	1	2.7371	1.17875
q7-6	232	1	2.6034	1.19072

2) 가설검증

표 9. 공동체 의식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공동체 의식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성	남	106	3.28	.67	.007	.935
	여	117	3.27	.58		
연령	20-25	95	3.22	.63	1.571	.145
	26-30	29	3.20	.68		
	31-35	16	3.22	.63		
	36-40	18	3.09	.66		
	41-45	12	3.48	.27		
	46-50	26	3.35	.57		
	51-55	19	3.64	.58		
56이상	8	3.26	.62			
학력	중졸	34	3.32	.70	.458	.712
	고졸	103	3.23	.56		
	대졸	64	3.34	.70		
	대학원	16	3.28	.63		
유입	고향	92	3.42	.67	8.241	.004*
	타향	130	3.18	.56		

\*p(0.05)

첫째, 사회적 변수와 공동체 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분산분석을 실시 해 보았다. 구성요인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학력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설1에 대하여 지지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향, 타향 여부인 유입에 대한 변인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고향 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유했다.

둘째, 사회적 변수와 주민참여의향·주민참여정도이다. 가설 2도 분산분석 결과 거주지 유입 여부 결과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역시 고향 출신 일수록 높은 지역공동체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래의 지역이 고향이라는 심리적 소속감 요인이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의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0. 참여의향 · 참여정도 간 분산분석

구분	N	주민참여의향				주민참여정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	남	106	2.51	.91	.045	.833	1.96	1.05	.029	.866
	여	117	2.49	.87			1.93	.96		
연령	20-25	95	2.40	.83	1.088	.371	1.72	.93	2.044	.051
	26-30	29	2.54	1.05			2.04	1.28		
	31-35	16	2.74	.82			1.79	1.03		
	36-40	18	2.24	.94			2.15	.87		
	41-45	12	2.56	.85			1.92	.85		
	46-50	26	2.71	.84			2.37	.96		
	51-55	19	2.75	1.00			2.07	1.15		
	56세 이상	8	2.35	.82			1.94	.44		
학력	중졸	34	2.61	.85	1.709	.166	2.09	1.03	3.925	.009
	고졸	103	2.34	.85			1.69	.86		
	대졸	64	2.63	.92			2.16	1.09		
	대학원	16	2.51	1.04			2.18	1.26		
유입	고향	92	2.70	.92	8.51	.004*	2.23	1.07	13.41	.000*
	타향	130	2.36	.84			1.75	.91		

\*p<0.05

가설 3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거주지 유입여부와 학력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대학생들 및 젊은 세대의 유의성은 비교적 적었지만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주민참여 정도와 비례해 높은 성향을 보여주었다.

3) 회귀분석

먼저, 공동체 의식의 요인들이 주민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인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등이 주민참여의 의향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공동체 의식 구성요소의 주민참여 의향에 대한 결정계수는 20%이며, F값은 13.656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들이 주민참여의 의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충족감(베타값 .085), 연대감 (베타값 .216), 소속감 (베타값 .239), 친밀감 (베타값 .044) 등 모든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의 의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의 요인들이 주민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인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등이 주민참여의 의향에 대한 영

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와 같으며 공동체 의식 구성요소의 주민참여 의향에 대한 결정계수는 13.5%이며, F값은 8.525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들이 주민참여의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충족감(베타값.208), 연대감 (베타값 .139), 소속감 (베타값 .137), 친밀감 (베타값 -.087)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공동체의식이 높을 수록 주민참여 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회귀분석

	종속변수	주민참여 의향					
		주민참여 의향			주민참여 정도		
		B	$\beta$	t값	B	$\beta$	t값
공동체 의식	충족감	.096	.085	1.238	.270	.208	2.921
	연대감	.205	.216	3.135	.151	.139	1.941
	소속감	.240	.239	3.202	.157	.137	1.762
	친밀감	.037	.044	.692	-.085	-.087	-1.325
F		13.656			8.525		
R제곱		.200			.135		

3. 발전방안

1)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천안시민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볼 때 여러 개선 방안들에 대해 고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천안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개선방안은 q8-3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q8-4의 “평생학습도시 구축”, q-8-5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순이었고, q8-2의 “지역정체성의 미흡개선을 위해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지역자원을 축적하여 새로운 것 창조”, q8-1의 “지역정체성의 미흡개선을 위한 천안시 보유 또는 축적하고 있는 지역자원 발굴”, q8-6의 “지역신문의 구독”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유효	결측	평균	표준편차
q8-1	230	3	3.4609	1.18791
q8-2	229	4	3.6332	1.07847
q8-3	230	3	3.7130	1.10785
q8-4	229	4	3.6550	1.11950
q8-5	230	3	3.6522	1.15629
q8-6	228	5	3.1360	1.29517



## 2) 지역 정체성의 미흡 개선방안

지역정체성이란 ‘지역’과 ‘정체성’의 합성어이다.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화 한다. 이 형상화는 지리적 요소는 물론 자연환경·문화·경제·역사·정치 등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폭발적인 인구유입과 산업발전으로 천안 고유의 지역정체성이 퇴색해버린 지금 다시금 천안시의 고유의 지역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은 첫째, 그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풍토적, 지리적 조건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부정형한 가치와 이미지에 명쾌한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통합된 비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도시의 정체성 형성은 먼저 무엇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도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유 또는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의 발굴이다. 천안시는 백제유적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천안시 용원리에서는 일반 묘보다는 규모가 큰 봉분을 발견하였다. 이묘는 4~5세기 백제무덤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백제가 서울에 도읍을 두고 충청과 전라를 지배하던 이른바 한성백제로,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당시 발굴 조사에 참여했던 공주대학교 박물관 관계자는 “천안은 사실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한성보다 클 수는 없었지만 주변지역과는 월등한 차이가 나는 대규모의 세력을 형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같은 역사적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지역자원을 축적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천안하면 막상 떠오르는 것이 없어 도시 이미지 제고 전략이 시급하다. 천안시는 WHO국제안전도시, 국제비즈니스파크 기능지구 지정, 흥타령 춤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1년에 최우수축제로 선정 되었고, 천안의 병천 순대나 막걸리, 호두과자 같은 먹을거리 및 각종 중앙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천안의 대표이

미지로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천안시는 지역을 상징할 대표음식과 여러 축제들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육성하여야 하고 천안의 대표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천안에는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수 없이 많다.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고 민족정기와 열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여야 한다.

## 3) 기타 활성화 방안

첫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이다. 강은숙(2003)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상호교류하고 생활정보를 획득하며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평생학습도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남선은 평생학습도시의 구축이 개인의 잠재력 발전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이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공동체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영역의 참여주체와 사회적 영역의 참여주체를 분리시키지 않고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회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두 영역에 포함된 개인과 집단 모두에 연계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통합은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데 중요하고, 또한 지역에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은 장기적인 지역발전이라는 비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공동체의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을 지역공동체 발전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27].

넷째로 지역신문의 구독이다. 장수찬(2005)에 의하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주어진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면한 문제를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나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역신문 구독이 지역공동체 내에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고양시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신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28].

## V. 결론

본 논문은 우리의 급격한 산업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경쟁력 하락, 통신발달로 인한 지역의 특성 및 지역정체성의 약화 등에 따른 지역갈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지역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천안지역을 사례로 지역공동체형성을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표별 빈도분석은 지역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 1과 2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위해 공동체 의식 및 주민참여의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설1에 대하여 지지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천안시의 고향, 타향 여부인 유입에 대한 변인은 공동체 의식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고향 일수록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분산분석 결과 가설 1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유입 여부 결과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고향 출신 일수록 높은 지역공동체 참여의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과 주민참여의 의향, 정도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과 주민참여의 의향, 정도가 각각 결정계수 20%, 12.4%로 나타났으며, F값은 13.656, 7.728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의 의향, 정도 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요건은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형성전략의 적용이다.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질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상과 사과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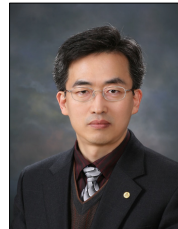
- [1] 최상호, 정지웅, *지역사회개발론*, 선일 문화사, 1988.
- [2] 김남선,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학습체계 모색: 지역사회조직을 중심으로, 「농정연구」 2004년 겨울호, 2004.
- [3] 김필두, 읍·면·동 기능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4] G. A Hillery,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1995.
- [5] R. M. Maclver and C. H. Page, *Society*, N.Y. : Rinehart & co. 1949.
- [6] M. O. Weil, "Community Building: Building Community Practice," *Social Work*, Vol.41, No.5, 1996.
- [7] 심익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4, No.2, pp.33-53, 2002.
- [8] Shafritz, Jay M.(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Westview Press, 1998.
- [9] M. O. Weil, "Community Building: Building Community Practice," *Social Work*, Vol.41, No.5, 1996.
- [10] 강은숙,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 군포시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Vol.41, No.2, 2003.
- [11] M. S. Haque,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1, No.1, 2001.
- [12] J. Nalbandian, "Facilitating Community, Enabling Democracy: New Roles for Local Government Manag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9, No.3, 1999.
- [13] 강은숙,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 군포시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Vol.41, No.2, 2003.
- [14] 이선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와 이해*, Vol.3, No.1, 2005.
- [15] 배웅환, 지역공동체의 지방거버넌스 모형, 충남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Vol.12, No.3, 2003.
- [16]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민의식 대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1994.
- [17] 김경준,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9.
- [18] 성희자, 전보경,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27, pp.153-155, 2006.
- [19] 김경준,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9.
- [20] 성희자, 전보경,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27, pp.153-155, 2006.
- [21] 김경준,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9.
- [22]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pp.106-116, 2003.
- [23]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pp.106-116, 2003.
- [24] R. D. Putnam,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n, *PS*, December, pp.664-665, 1995.
- [25] Newton, Kenneth,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ris(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Oxford university Press), Vol.4, 1999.
- [26]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pp.106-116, 2003.
- [27] 한상일, "창조와 혁신",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제3권, 제1호, pp.223-246, 2010.
- [28] 장수찬,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전개: 전민동 주민의 사회생활 및 정치생활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논총*, 제23집, 제2호, pp.303-333, 2005.

#### 저자 소개

##### 박종관(Jong Gwan Park)

##### 정회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9년 현재 : 백석대학교 법경학부 행정학전공 주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2008년 12월 ~ 현재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
  - 2012년 1월 ~ 현재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2010년 3월 ~ 현재 :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
- <관심분야> : 구역개편, 성과관리, 사회자본, 정부기능